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6. 7.(수) 11:00 < 6.8.(목) 조간 > 배포 2023. 6. 7.(수)

국제 전기설비기준 공유하여 안전성 높인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학술회의(SETIC 2023)' 3일간 진행 -
- 기술기준 유공자 포상, 최신 기술기준 및 국제표준 정보 공유 토론회 -

발전소, 전기시설물 등 전기설비 안전성을 높이기 최신기술과 국제표준 동향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7일(수)부터 9일(금)까지 3일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학술회의, SETIC 2023」을 개최한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기설비 시공, 점검,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인 최신 기술기준과 국제표준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 **SETIC** : **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행사 첫째 날(6. 7일) 개막식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부터는 기술기준 제·개정 사안 및 최신 에너지 기술 동향 등을 포함한 기술 토론회(세미나)가 개최된다.

* 포상 규모 : 산업부 장관 표창 6점, 공로패 2점, 감사패 2점

산업부 관계자는 "최신기술 동향과 국제(글로벌) 표준을 국내 전력기술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책임자	과 장	황윤길 (044-203-3980)
		담당자	사무관	최재영 (044-203-398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컨퍼런스, SETIC 2023」 행사 주요내용

